

CEO Report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2015. 6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특히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2014년의 경우 3.3% 성장하며 전년(2.9%)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이 1/4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기 2.7%로 계속해서 하락하였음. 2015년 1/4분기에도 성장률이 2.5%로 낮아짐.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및 엔화 약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기존 전망 3.7%, 이하 기존)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2015년 들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세가 2014년 10월 당시 전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7.5%(기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함.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1.9%(보장성보험: 5.1%, 저축성보험: -5.0%, 단체보험: 40.9%)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6.7%(기존 4.5%), 저축성보험은 4.7%(기존 5.0%), 단체 보험은 27.3%(기존 10.8%)로 증가율을 수정함.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7.9%(기존 5.4%)로 조정함.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 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8.3%(장기손해보험: 6.1%,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78.9%, 자동차보험: 5.2%, 일반손해보험: -0.3%) 늘어남. 2015년에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기존 5.8%), 개인연금은 경제 부진 및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1.5%(기존 0.2%),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26.5%(기존 5.6%), 자동차보험은 2014년에 미 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연초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7%(기존 3.7%), 일반손해보험은 경제 부진으로 1.6%(기존 2.8%) 증가할 것으로 보임.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7.0%(기존 4.8%)로 조정함.

CONTENTS

I. 경제·금융시장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2
II. 보험시장	5
1. 보험산업 총괄	5
2. 생명보험	5
3. 손해보험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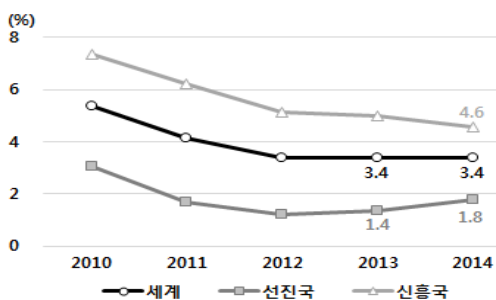
I.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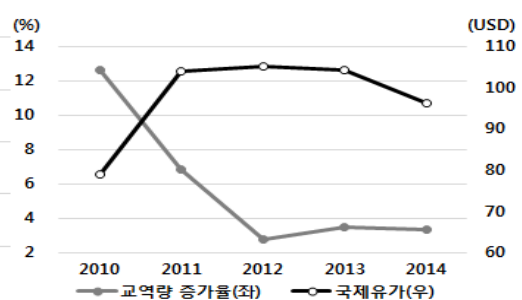
-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과 유사한 3.5%로 전망하였으나 OECD는 3.1%, World Bank는 2.8%로 하향 조정함.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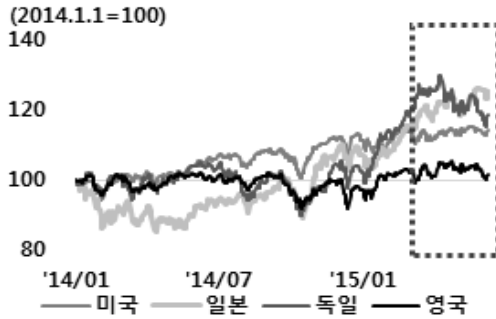
자료: IMF WEO(2015, 4).

그림 I-2 세계 교역량과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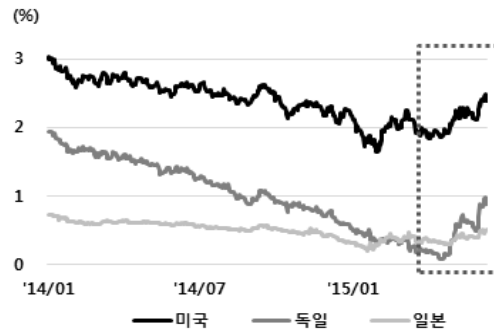
■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주요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9월로 예상되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환율시장과 더불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3 주요국 주가



자료: Bloomberg.

그림 I-4 주요국 국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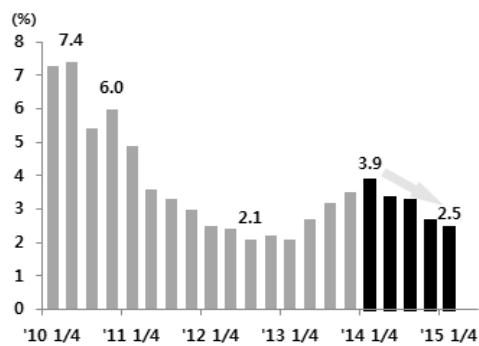


2. 국내경제

■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3.9%) 이후 성장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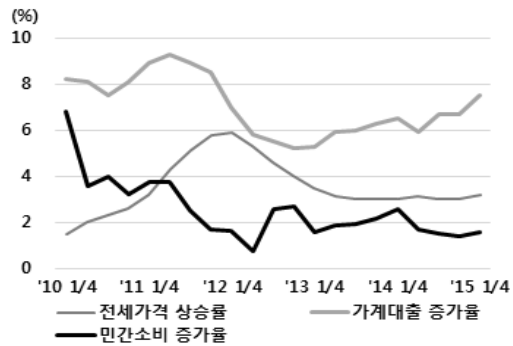
●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그림 I-5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가계부채 및 전세가격



● 또한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원화 강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선진국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음.

그림 I-7 수출과 실질실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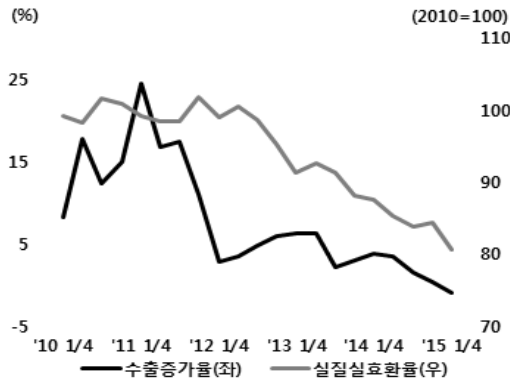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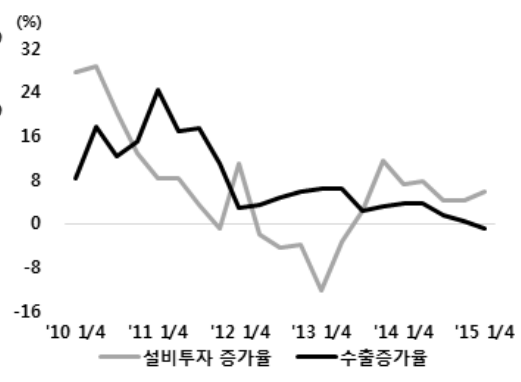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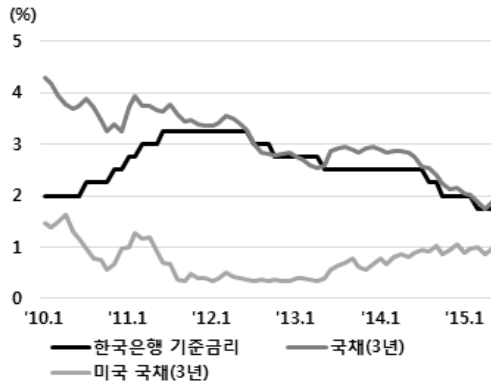
그림 I-8 수출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BIS.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외에는 물가 상승 요인이 없어 2014년 1.3%보다 0.4%p 낮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원화의 상대적 강세와 신흥국 등 세계경제 부진, 유가 하락,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입물가가 크게 낮아져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이 각각 8.3%, 12.0% 위축되고, 상품수지 흑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5월 중 평균 1.9%를 보였던 국채(3년) 금리는 6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 상승과 추경 등으로 하반기 높아져 연평균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1~5월 중 평균 1,09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연평균 1,120원이 전망됨.

그림 I-9 국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I-10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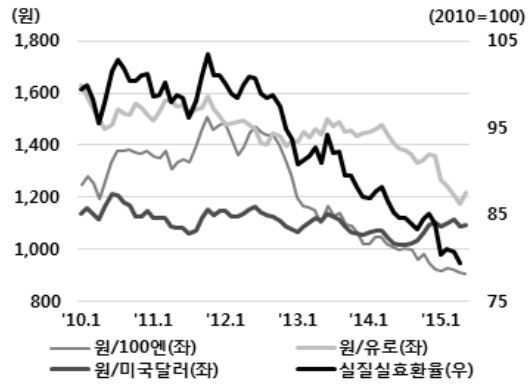


표 I-1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F) ¹⁾	
					기존 전망	수정 전망
실질GDP 성장률	3.7	2.3	2.9	3.3	3.7	2.7
민간소비	2.9	1.9	1.9	1.8	2.7	1.9
설비투자	4.7	0.1	-0.8	5.8	5.7	4.5
건설투자	-3.4	-3.9	5.5	1.0	2.9	3.0
지식생산물투자	6.9	8.6	4.4	4.6	6.3	4.7
재화수출	17.1	4.4	4.5	2.3	6.0	1.7
재화수입	17.6	1.9	1.3	1.2	6.5	2.1
소비자물가	4.0	2.2	1.3	1.6	2.0	0.9
상품수지(억 달러)	290.9	494.1	827.8	926.9	778.0	1,050.0
상품수출 증가율	26.6	2.8	2.4	0.5	4.0	-8.3
상품수입 증가율	34.2	-0.7	-3.4	-1.3	6.0	-12.0
국채(3년) 금리	3.6	3.1	2.8	2.6	2.6	2.0
원/달러 환율(원)	1,108	1,127	1,095	1,053	1,040	1,120

주: 1) 2015(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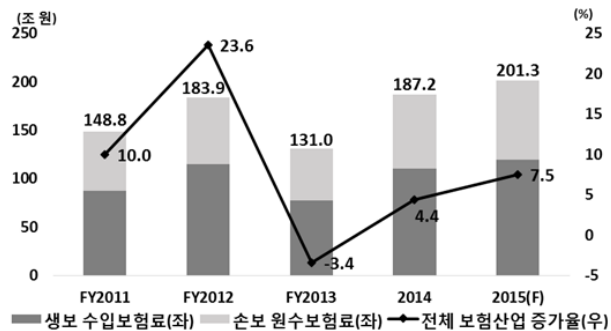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Ⅱ.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 2014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생명보험(1.9%)과 손해보험(8.3%) 모두 성장하며 4.4% 늘어남.
-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4년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7.5%(생명보험 7.9%, 손해보험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Ⅱ-1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추이 및 성장률 전망



자료: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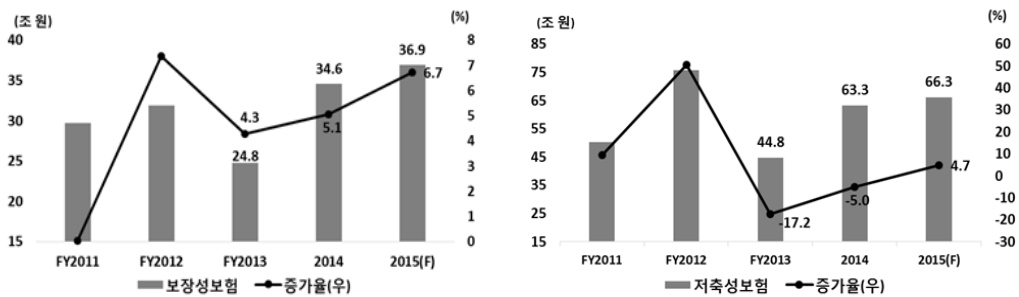
2. 생명보험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개인보험이 1.7% 감소 (보장성보험 5.1% 증가, 저축성보험 5.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40.9% 늘어나는데 힘입어 1.9% 증가함.

- 2015년에는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보장성보험(6.7%), 퇴직연금(27.3%)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4.7%)도 성장하여 수입보험료가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 지속, 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금리경쟁력 유지 등의 영향으로 5.5% 성장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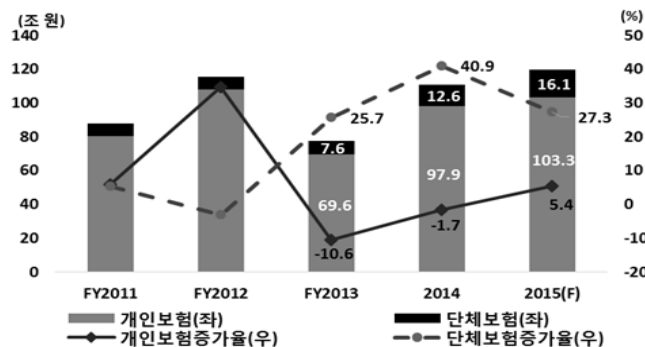
그림 II-2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단체보험은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증가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지속의 영향으로 7.9% 성장이 예상됨.

그림 II-3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4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주요 내용 및 예상 효과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전체 퇴직연금 제도 가입 증대
DB형 단계적 사외적립강화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단계적 상향 ('14~'15) 70% → ('16~'17) 80% → ('18~'19) 90% → ('20년) 100%	DB형 퇴직연금 자연 증가분 증가
퇴직연금 추가 가입 장려	퇴직연금계좌(DC형, IRP) 2015년부터 300만원 납입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신설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추가납입 증가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 → 70%)	

* 단, 관련 법안의 일정 지연, 구체적 처리 결과 등에 따라 효과의 불확실성이 상존함.

표 II-1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개인	696,477	-10.6	979,382	-1.7	1,032,758	5.5	4.8
보장성	248,094	4.3	346,027	5.1	369,325	6.7	4.5
저축성	448,383	-17.2	633,355	-5.0	663,434	4.7	5.0
단체	75,891	25.7	126,371	40.9	160,855	27.3	10.8
퇴직연금	69,524	27.5	118,173	45.8	152,556	29.1	11.7
합계	772,367	-8.0	1,105,753	1.9	1,193,613	7.9	5.4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3.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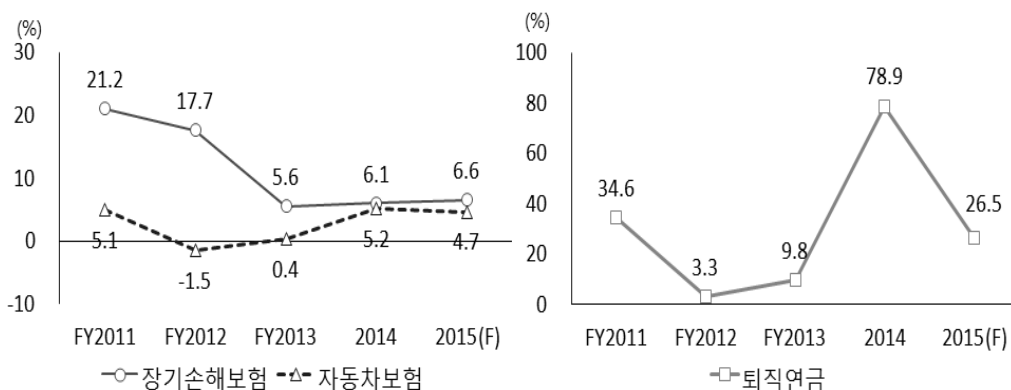
■ 2014년 손해보험¹⁾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6.1%), 자동차보험(5.2%), 퇴직연금(78.9%) 등을 중심으로 8.3% 증가함.

- 개인연금(-3.2%)과 일반손해보험(-0.3%)은 감소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 증가할 것이 예상됨.
- 자동차보험은 2014년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대물담보 가입 금액 증가 추세로 4.7% 증가가 전망됨.
- 퇴직연금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등으로 26.5%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림 II-5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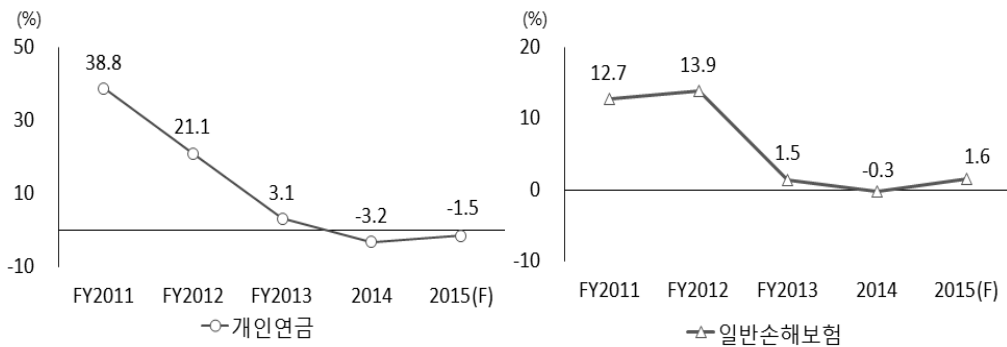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성장여력이 약화되어 1.5% 감소하고 일반손해보험은 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1.6%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6 개인연금,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3 ²⁾		2014 ²⁾		2015(F) ^{1),2)}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손보	315,478	5.6	444,037	6.1	473,474	6.6	5.8
－상해·질병	142,314	16.1	213,233	14.3	239,602	12.4	10.8
개인연금	31,829	3.1	41,090	-3.2	40,474	-1.5	0.2
퇴직연금	31,152	9.8	63,718	78.9	80,606	26.5	5.6
자동차	97,435	0.4	135,484	5.2	141,866	4.7	3.7
일반손보	61,679	1.5	81,424	-0.3	82,728	1.6	2.8
전체	537,582	4.2	765,754	8.3	819,148	7.0	4.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저자약력

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해외경제 이아름(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량(연구원)

보험산업

보험총괄 김석영(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수석담당역)

이해량(연구원)

손해보험 최원(선임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CEO Report 2015-0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인 강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